

代脈의 體狀에 대한 文獻的 考察

김정규

대전대학교

Abstract

The philological study on the form of intermittent pulse(代脈)

Jeong-Giu Kim

Depar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form of intermittent pulse(代脈) has three standards. The first is "The persistence of the pulse stop(止不能還)". This standard is extensively accepted to the medical scientists in every ages of after the <Treatise on Febrile Diseases(傷寒論)>. The second is "The replacement of the former pulses(更代)". This standard is very useful to explain the situations that the intermittent pulse(代脈) is regarded as a dead pulse(死脈). The third is "The regular interval of the pulse stop(止有定數)". This standard is impractical and illogical to practical using of the intermittent pulse(代脈). The reason is misreading on the <Nae-Kyeong(內經)> of Wang-Suk-Hwa(王淑和) and the inexact & expansive reproduction of medical men of the Myeong-Chung dynasty(明清代).

Key words

The intermittent pulse(代脈), The persistence of the pulse stop(止不能還), The replacement of the former pulses(更代), The regular interval of the pulse stop(止有定數)

* 교신저자 : 김정규 / 소속:대전대학교

TEL : 042-823-8835 / E-mail : kjgpsy@hanmail.net

Received for publication Sep 20, 2010; accepted in revised form Oct 18, 2010

I. 緒論

脈象을 現代의으로 應用하고 客觀化하기 위해서는 古典에서 그리고 있는 脈象의 基準이 무엇이었나를 考察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중에 代脈은 脈搏의 규칙성에 이상이 보이는 脈인데, <內經>에서 제시된 內容을 근거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脈象을 정립하는데 혼동이 있는 脈이기도 하다. 代脈의 體狀은 크게 “中止不自還”¹⁾, “更代”²⁾, “止有定數”³⁾의 세 가지 基準을 根據로 설명되는데, 모두 <內經>과 <傷寒論>, <脈經> 등 初期醫學著作의 內容을 근거로 後世에 醫家들이 자신들의 臨床經驗과 文獻考察을 통하여 정하게 된 기준들이다.

文獻들을 考察하는 과정에서 明代 이후의 脈學書籍들은 代脈의 脈象을 설명하는 과정에 古典의 誤讀을 통한 과장된 脈象의 설명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無批判의으로 擴大再生産한 傾向이 보이는 脈象의 說明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文獻의으로 代脈의 體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어 왔으며 實在的인 代脈의 脈象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에 代脈의 脈象이 형성된 과정을 考察하고 論難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文獻考察

1) <內經>의 代脈

① “但代無胃曰死”

<素問.宣明五氣篇> “脾脈은 代하니라”⁴⁾

<靈樞.邪氣臟腑病形篇> “黃者는 其脈代하니라”⁵⁾

<素問.平人氣象論> “長夏에 胃微軟弱을 曰平이오 弱多胃少를 曰脾病이오 但代無胃를 曰死오 軟弱有石을 曰冬病이오 弱甚을 曰今病이니 藏眞이 濡于脾하야 脾藏肌肉之氣也니라”⁶⁾

이상의 句節들은 脈搏의 규칙성에 異常을 기준으로 代脈을 論한 것이 아니라 胃氣의 強度를 기준으로 論한 구절들이다. 그리고, 軟弱한 것이 極度로 심하게 되었을 때 “但代無胃”하게 된다고 한 구절을 볼 때 和緩하고 軟弱한 脈의 一種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後代에 “更代”를 代脈의 基準으로 보는 醫家들에게 이 句節들은 중요한 근거가 되며, 代脈이 死證脈이 된다는 근거가 보인다.

② “幾十動一代者 幾臟無氣”, “乍數乍疏”

<靈樞.邪氣臟腑病形篇> “五十動而不一代者는 五臟皆受氣오 四十動一代者는 一臟無氣오 三十動一代者는 二臟無氣오 二十動一代者는 三臟無氣오 十動一代者는 四臟無氣오 不滿十動一代者는 五臟無氣니 豫及短期니라”⁷⁾

1) 脈搏의 규칙성에 異常을 수반한 脈象으로 그치는 시국이 結脈이나 促脈보다 確연하게 길다고 보았다.
2) 脈搏의 규칙성에 異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確연하게 다른 脈象이 갑자기 보였다 사라는 것으로 보았다. 胃氣나 脈神을 重視하는 醫家들이 주로 주장하는 기준이다.
3) 脈搏의 규칙성에 異常이 수반되면서 脈이 그치는 간격이 結脈이나 促脈과는 달리 일정하다고 보았다.

4) 진주표편주, 黃帝內經讀本,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58.

5) 진주표편주, 上揭書, p.516.

6) 진주표편주, 上揭書, p.115.

7) 진주표편주, 上揭書, p.516.

<靈樞.根結篇> “所謂五十營者是 五藏皆受氣니 持其脈口하여 數其至也라 五十動而不一代者는 五藏皆受氣오 四十動一代者는 一藏無氣오 三十動一代者는 二藏無氣오 二十動一代者는 三藏無氣오 十動一代者는 四藏無氣오 不滿十動一代者는 五藏無氣니 予之短期라 (要在終始) 所謂五十動而不一代者는 以爲常也니 以知五藏之期오 予之短期者는 乍數乍疏也니라”⁸⁾

<素問.平人氣象論> “脈絕不至를 曰死오 乍疏乍數를 曰死니라”⁹⁾

<邪氣臟腑病形篇>의 句節은 “更代”와 “止有定數”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다. 그런데, 본 구절의 몇십動에 한 번 그치면 몇몇 臟에 氣가 없다는 論述은 기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많은 誤謬를 가져오게 된다. 五十이나 四十 등의 숫자는 모두 대략의 숫자일 따름이다¹⁰⁾. 즉 얼마 정도에 脈搏의 규칙성이나 脈象이 고르지 못한가를 말하는 것이고, 꼭 그러한 搏動數가 있는 후에 고르지 못한 脈象이 보인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幾臟無氣”의 “無”字의 경우도 어느 臟器의 기운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 臟象學說에서 五臟의 경우는 어느 한 臟器에 기운이 부족하면 심각한 病이 되고 어느 臟器이든 그 기능이 소실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보편타당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본 句節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본 句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된다. 본 句節에서 말하는 숫자

는 대략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하며 “氣運이 없다.”는 것은 脈의 규칙성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몸에는 어느 정도 不調和가 발생하는가를 비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後世에는 본 句節의 “代”란 글자를 “更代”로 해석해야 한다는 醫家와 본 句節을 근거로 “止有定數”를 代脈의 기준으로 삼는 醫家가 있었다. “更代”로 해석한 醫家들은 본 구절을 기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止有定數”를 主張하는 醫家들은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하여 “死期”와 特定臟器까지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根結篇>의 구절은 <邪氣臟腑病形篇>의 내용과 一脈相通한다. 하지만, <根結篇>에서는 마지막에 “予之短期者 乍數乍疏也”란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代脈이 死證脈이란 사실과 脈搏의 규칙성의 변동과 관련있는 脈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更代”를 主張하는 醫家들은 “乍數乍疏”가 脈搏의 규칙성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서 調和가 깨진 脈을 의미한다는 主張을 한다.

<平人氣象論>의 내용에서는 代脈이란 명칭은 없지만 死證脈이란 것과 脈搏이 규칙성을 잃었다는 성질이 代脈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根結篇>의 내용과 一脈相通하므로 이 구절 또한 代脈을 설명하는 구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數動一代”

<素問.脈要精微論> “數動一代者는 病在陽之脈也니 泄及便膿血이니라”¹¹⁾

8) 진주표편주, 上揭書, p.528.

9) 진주표편주, 上揭書, p.115.

10) “五十이나 四十 등의 숫자도 모두 ‘虛數’로 대략의 숫자일 따름이다. 이는 清代의 汪中의 證明이 비교적 정확한데, 醫書 중에 여러 숫자들은 모두 대략의 숫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이 文章에 나오는 숫자도 그 하나의 예가 된다.”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1998. p303.

11) 진주표편주, 上揭書, p.103.

본 句節에서 설명하는 代脈을 脈搏의 규칙성의 변화에 이상이 있는 脈으로 본다면 이 脈은 後世의 促脈의 설명에 가깝게 되는데, <脈經> 이전에는 脈象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數動一代”는 “數動一止”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④ 小結

<內經>에서는 代脈이 死證과 같은 불량한 예후를 나타내는 脈이 되고, 脈搏의 규칙성에 변동을 수반한 脈이며, 얼마에 한 번 정도 代脈이 보이는가에 따라 全身 臟腑의 氣運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內經>에서 제시된 代脈의 내용을 근거로 後代 醫家들은 代脈의 體狀을 “更代”와 “止有定數”로 해석하였으며, “止不能還”의 體狀은 <內經>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2) 仲景의 代脈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中> “傷寒解而後에 脈結代¹²⁾ 心動悸는 炙甘草湯·主之니라”¹³⁾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下> “脈來動而中止호대 不能自還하고 因而復動을 名曰代니라”¹⁴⁾

本節의 내용은 脈動이 그치는 시간이 긴 脈을 代脈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樣相이 結脈이나 促脈과는 달리 그치는 시간이 길고 그 양상이 엄중하고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止不能還”을 代脈의 體狀으로 맨 처음 제시한 곳은 <傷寒論>이 된다.

3) <難經>의 代脈

<難經.十一難> “十一難에 曰 經言脈不滿五十動而一止 一藏無氣者는 何藏也오 然이라 人吸者는 隨陰入하고 呼者는 因陽出하니 今吸이 不能至 腎이오 至肝而還이라 故知一藏無氣者는 腎氣先盡也라”¹⁵⁾

本節은 <內經>의 내용 중 “幾臟無氣”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다. 腎臟만을 말하였지만 이 내용을 유추 해석한다면 一臟은 腎臟이고, 二臟은 腎臟과 肝臟이고, 三臟은 腎臟, 肝臟, 脾臟이고, 四臟은 腎臟, 肝臟, 脾臟, 心臟이며 마지막으로 五臟이 모두 病이 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內經>의 理論을 下焦부터 점차 氣運이 衰落한다는 臟象學說을 이용하여 부연 설명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4) <脈經>의 代脈

① “不能自還”

<脈經.脈形狀指下祕訣第一> “來數中止호대 不能自還하야 因而復動이라 脈結者는 生코 代者는 死하니라”¹⁶⁾

이 句節은 仲景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千金方>, <千金翼方>에서도 <脈經>의 文章을 인용하고 있다.

② “脈來幾動而一止”

<脈經.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 “脈五來에 不復增減者는 死니 經에 名曰代라 何謂代오 脈五來一止也라 脈七來는 是人坐一夕半時에 不復增減

12) 古本에는 ‘脈結促’으로 되어 있다.

13)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0.

14) 胡國臣總主編, 上揭書. p.670.

15) 劉洋主編, 徐靈胎醫學全書, 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

16)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

이니 亦名曰代라 正死不疑니라”¹⁷⁾

<脈經.診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 “脈來五十投而不止者는 五藏皆受氣니 卽無病이라 脈來四十投而一止者는 一藏無氣니 却後四歲 春草生而死 하나라 脈來三十投而一止者는 二藏無氣니 却後三歲 麥熟而死 하나라 脈來二十投而一止者는 三藏無氣니 却後二歲 桑椹赤而死 하나라 脈來十投而一止者는 四藏無氣니 歲中死오 得節不動出清明日에 死하고 遠不出穀雨에 死矣니라 脈來五動而一止者는 五藏無氣니 却後五日而死 하나라”¹⁸⁾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에서는 五至와 七至以下로 “定數中止”하는 것이 死證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內經>에서 根源을 찾고 있지만 <內經>에서는 “不滿十動一代者 五藏無氣 豫及短期”라고만 한 것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만을 보면 <內經>을 근거로 삼으면서 <內經>의 이론을 발전시키려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內經>의 代脈을 “不復增減”이란 말로 “그치면서 간격이 일정한 脈”이었다고 한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後世에 代脈의 體狀을 誤解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診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에서는 <內經>의 내용을 그대로 引用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內經>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곡해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심각한 오류가 보인다. <內經>의 내용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內經>의 “代”란 글자가 “止”로 바뀌어 있다. 이 경우 代脈의 다른 특징은 배제하고 脈이 오다가 그치는 脈만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리고, <內經>에서는 단지 “幾臟無氣”라고만 하여 꼭 死證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本節에서는 몇 년 뒤에 죽게 되고, 어느 때 죽게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內經>의 解釋의 폭을 심각하게 좁혔으며, 後代의 醫家들이 代脈의 體狀과 主病을 비현실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오게 되었다.¹⁹⁾

③ 小結

<脈經>에서는 代脈의 體狀에 대해서 “止不能還”의 體狀과 “止有定數”의 體狀이 모두 提示된다. 하지만, “止有定數”에 있어서 <內經>의 곡해와 비현실적 이론 전개가 문제가 된다.²⁰⁾

5) <脈經> 以後 宋金元代 醫書의 代脈

① “止不能還”

<王淑和脈訣> “六代者는 陰也니 指下尋之에 動而復起하고 再再不能自還을 曰代라 主形容羸瘦오 口不能言이니라” “歌曰 代脈時時動若浮호대 再而復起似還無라 三元正氣隨風去니 魂魄冥冥何所拘아”²¹⁾

<活人書> “往來緩하야 動而中止하고 不能自還

19) <脈經>의 내용대로라면 몇 심동에 한 번씩 그치는 不整脈 환자들은 불량한 예후를 가진 심각한 질환을 수반해야 한다.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 되고 만다. 이 부분에 대해서 張介賓을 비롯한 많은 醫家들의 비판이 있어 왔다.

20)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死證이라고 명확하게 단정을 짓지는 않고 있으며, 死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旬節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내용은 이해하거나 신뢰가 간다고 할 수 없는 글이 된다. 그런데, <脈經>에서는 이를 근거로 四臟에 氣運이 없으면 一年만에 죽는다는 학설을 더하게 된다.” 趙恩儉主編, 上揭書, p.297.

21) 晉 王淑和著, 圖注難經脈訣, 臺南, 大宇書局, p.218.

17) 吳承玉主編, 上揭書, p.181.

18) 吳承玉主編, 上揭書, p.146.

이러가 因而復動이니라”²²⁾

<崔紫虛脈訣> “代는 ……止難回之니라”²³⁾

<察病指南> “指下尋之에 往來緩하고 動而中止에 不能自還이라가 因而復動하니라”²⁴⁾

<診家樞要> “代는 更代也니 動而中止하야 不能自還이라가 因而復動이오 由是復止니라 尋之良久에 乃復強起를 爲代니라”²⁵⁾

<脈經> 이후의 各家는 대부분 脈이 뛰다가 중간에 한 번 그치는데 스스로 回復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代脈의 指標로 삼았다.²⁶⁾

② “止有定數”에 대한 戴啓宗의 비판

<脈訣刊誤> “<脈經>에 以四臟無氣를 歲中死라하고 幾臟無氣로 以分別幾歲之死期하니 予竊疑焉이라 <內經>에 云 腎絶하면 六日死하고 肝絶하면 八日死하고 心絶하면 一日死라하니 果此臟氣가 絶에 又安能待四歲三歲乎리오”²⁷⁾

본 句節은 <脈經>이 <內經>의 “幾臟無氣”에 “幾歲死”를 추가하여 설명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戴啓宗 또한 <內經>의 “無氣”가 “五臟絶”의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後代의 李時珍은 <瀕湖脈學>에서 戴啓宗의 學說을 인용하여 <脈訣>을 비판하지만 代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說을 따르지 않고 <脈經>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2) 趙恩儉主編, 上揭書. p.298.

23) 趙恩儉主編, 上揭書. p.298.

24) 施發, 察病指南,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三聯書店, 1990. p.21.

25) 趙恩儉主編, 上揭書. p.298.

26) 楊玄操의 <難經集注>, <外科精義>, <脈訣刊誤>, <醫經小學> 등이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不能自還”을 體狀의 기준으로 삼았다. 趙恩儉主編, 上揭書. p.298.

27) 戴啓宗, 脈訣刊誤, 中國醫學大系 14, 圖書出版鼎談. p.896.

6) 明代 以後 脈學書籍의 代脈

① <醫學入門>

明.李梴 <醫學入門.諸脈體狀> “代脈中止不自還이라”(正文) “代는 更代也니 先見澁濡하고 定止라야 方見代脈이니라 止歇에 有定數하야 不比促結이 止而不定이니라 如十動一止면 雖數十動이라도 皆見于十動之後하고 如二十動一止면 雖數十動이라도 皆見于二十動之後하고 三十四動도 皆然하니라”(注文)²⁸⁾

<醫學入門.總看三部脈法> “呼出은 心與肺니 一動肺이고 一動心이며 吸入은 腎與肝이니 一動肝이고 一動腎이며 呼吸之間에 一動은 脾라 今吸不能至腎하고 至肝而還하야 復動肺脈하면 則四十動後에 一止者니 是는 腎先絶하야 肝臟이 代至라 期四年春草生時에 死하니라 就肝部하야 數起하야 三十動一止者는 肝腎兩臟에 無氣하야 心臟代至니 期三年穀雨時에 死하니라 就心部하야 數起하야 二十動一止者는 腎肝心三臟에 無氣하야 脾臟代至니 期二年桑柘赤時에 死니라 就脾部하야 數起하야 十五動一止者는 腎肝心脾四臟에 無氣하야 肺脈代至니 期一年草枯時에 死니라 至於兩動에 一止와 或三四動에 一止者는 死를 以日로 斷矣니라”²⁹⁾

<諸脈體狀>에서 李梴은 正文에서는 “止不能還”을 諸脈의 體狀으로 채택하였고, 注文에서는 “更代”와 “止有定數”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³⁰⁾. 특히 “更代”는 張景岳이 제시한 體狀을 그대

28) 朴晷譯釋,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대성문화사, 1996. pp.230-231.

29) 朴晷譯釋, 上揭書. pp.433-437.

30) 明代 以後 綜合醫書들은 기존의 모든 내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깊은 考察이 수반되지 않아서 서로 矛盾이 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全載하는 誤謬를 많이 일으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止有定數”의 설명에서는 <內經>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如十動一止 雖數十動 皆見于十動之後”라고까지 過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總看三部脈法>에서는 “止有定數”에 대하여 <內經>의 내용이 <難經>, <脈經>을 거쳐 심화된 부분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內經>의 本意가 더욱 더 심하게 왜곡된다.

② <瀕湖脈學>

李時珍 <瀕湖脈學.體狀> “代脈은 動而中止야 不能自還이라가 因而復動이라 脈至에 還入尺하고 良久方來니라”³¹⁾

<瀕湖脈學.主病> “五十不止身無病이오 數內有止皆知定이라 四十一止一臟絶이니 四年之後多亡命이라 三十一止卽三年이오 二十一止二年定이라 十動一止一年死로대 更觀氣色兼形證이라 兩動一止三四日이오 三四動止應六七이며 五六一止七八朝니 次第推之自無失이니라”³²⁾

李時珍은 <體狀>에서는 “中止 不能自還”을 제시하고 있지만, <主病>에서는 “定數中止”의 설명을 강조하고 있다³³⁾. 그런데, 注에서 柳東楊이 “五臟無氣”를 “五臟缺失”로 보고 어느 정도 脈이 調和롭지 못한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50動을 다 살피야 한다는

킨다. 이 부분에 대한 醫史學的 考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1) 李時珍, 瀕湖脈學, 李時珍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58.

32) 李時珍, 上揭書, p.1659.

33) “여기에서 李時珍이 代脈體狀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定數中止'만으로 死證을 표현할 수 없고 四診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趙恩儉主編, 上揭書. p.299.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主病時에 “更觀氣色兼形證”이라고 하여 脈이 그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氣色과 形證을 모두 고려하라는 내용을 볼 때, 李時珍이 主病에 “定數中止”의 내용을 제시한 것은 代脈의 體狀이 기계적인 “定數中止”라는 것이 아니라, 五臟의 缺失과 같은 氣運의 不調를 살피는데 脈搏의 규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³⁴⁾

③ 張景岳. 丹波元簡

<類經.五臟之氣脈有常數> “代는 更代之義니 謂于平脈之中而忽見軟弱이오 或乍數乍疏오 或斷復而起를 均名爲代니 代本不一이오 各有深義니라”³⁵⁾

“至於代脈之辨하얀 則有不同하니 如宣明五氣篇에 曰 脾脈代라하고 邪氣藏府病形篇에 曰 黃者는 其脈代라하니 皆言藏氣之常候오 非謂代가 爲止也니라 又平人氣象論에 曰 長夏胃微稟弱을 曰 平이오 但代無胃를 曰 死者는 乃言胃氣去而眞藏이 見者는 死니 亦非謂代爲止也니라 由此觀之면 則代本不一이오 各有深義니라 如五十動而不一代者는 乃至數之代니 卽本篇³⁶⁾之所云者가 是也라 若脈이 本平勻而忽強忽弱者는 乃形體之代니 卽平人氣象論에 所云者가 是也라 又若脾主四季而隨時更代者는 乃氣候之代니 卽宣明五氣等篇所云者가 是也라 凡脈에 無定候하야 更變不常을 則

34) “柳東楊曰 古以動數로 候脈은 是喫緊語니 須候五十動이라야 乃知五臟缺失이라 今人이 指到腕臂에 卽云見了라하니 夫五十動이 豈彈指間事耶리오 故學者는 當診脈 問證 聽聲 觀色이라야 斯備四診而無失이니라” 李時珍, 上揭書, p.1659.

35)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0.

36) <靈樞.根結篇>

均謂之代니 但當各因其變而察其精이라야 庶得其妙니라”³⁷⁾

<景岳全書.脈神障> “詳代脈之義하면 本以更代로 爲言이니 如宣明五氣篇에 曰 脾脈代者는 謂胃氣가 隨時而更이니 此四時之代也라 根結篇에 曰 五十動而不一代者는 謂五臟受氣之盛衰하니 此至數之代也라 本篇³⁸⁾曰 但代無胃曰死者는 謂代無眞臟不死也니라 由此觀之면 則凡見忽大忽小 乍遲乍數하야 倏而更變不常者는 均謂之代니라 自王叔和가 云 代脈來數中止 不能自還 脈代者死로 自後로 以此相傳하야 遂失代之眞義하니라”³⁹⁾

丹波元簡 <脈學輯要> “按代脈컨대 諸說이 不一이나 然이나 景岳所論이 尤爲允當矣니라 <史記>倉公에 云 不平而代라하고 又云 代者는 時參擊乍疏乍大也라하고 張守節이 正義에 云 動不定을 曰代라하니 可以確其說矣니라 蓋動而中止하야 不能自還이라가 因而復動者는 乃至數之變更이오 而仲景叔和所云者니 卽代脈中之一端也니라 若其爲止有常數者는 似泥于經文焉이니라”⁴⁰⁾

<脈學輯要.丹波元簡之父一醫案> “予家君이 近治一老人호대 症塊發動하야 引左脇而痛호대 綿連不已하고 藥食嘔變이라 其脈이 緊細而遲호대 左脈이 漸微小라가 遂絶止者가 二三十動許라 復手診之에도 亦然이오 又漸漸見出如故라가 良久에 又絶止如前이러라 用附子建中湯加吳茱萸하야 視療十餘日하니 痛全愈而脈復常이러라 是는 代가 最甚者니라”⁴¹⁾

張景岳은 <內經>에서 말하듯이 代脈이 胃氣에 문제가 있고, 元氣가 極度로 衰弱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代脈이 보일 때 五臟의 氣運에 缺失이 있다고 여길 정도로 豫候가 불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中止”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平脈之中而忽見軟弱 或乍數乍疏 或斷復而起”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代脈의 體狀을 “更代”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丹波元簡은 “中止不自還”만으로는 代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景岳의 學說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若其爲止有常數者 似泥于經文焉”이라고 하여 “定數中止”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見解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丹波元簡之父一醫案>의 내용은 景岳의 “平脈之中而忽見軟弱 或乍數乍疏 或斷復而起”란 내용이 그대로 보이는 臨床例를 제시한 것으로 景岳이 代脈의 體狀을 “更代”로 본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丹波元簡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기타 醫書

李中梓 <醫宗必讀> “動而中止하야 不能自還이오 止有定數가 爲代니라”⁴²⁾

<診家正眼> “代爲禪代니 止有常數오 不能自還이라가 良久復動이니라”⁴³⁾

<四診抉微> “仲景云 代脈은 動而中止하야 不能自還이라가 因而復動이라 吳氏曰 脈至에 還入尺하고 良久方來라하니라” “結促之止는 止無常數

37) 張景岳, 上揭書. p.81.

38) <素問.平人氣象論>

39)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23.

40) 丹波元簡著, 譯釋脈學輯要, 서울, 대성문화사, 1997. p.119.

41) 丹波元簡著, 上揭書. p.119.

42) 李中梓, 醫宗必讀, 李中梓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0.

43) 李中梓, 診家正眼, 李中梓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9.

로대 代脈之止는 止有定期니라⁴⁴⁾

<醫學心悟> “代는 動而中止호대 有至數也니라⁴⁵⁾

<醫宗金鑒> “若動而中止호대 不能自還이라가 須與復動이오 或十至 或二三十至에 一止하야 其至數가 不乖를 謂之代脈이니라⁴⁶⁾

<洄溪脈學> “動而中止하야 不能自還이오 止數有常하니 非暫之比니라⁴⁷⁾

위에 제시한 여러 醫書들을 보면 代脈의 體狀을 “止不能還”과 “定數中止” 모두로 제시하고 있는데, 代脈의 體狀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두 가지 모두를 代脈의 體狀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전해져 오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⁴⁸⁾

2. 脈象考察

1) “中止不自還”

“中止不自還”은 脈이 그치는 時間이 結脈이나 促脈보다 긴 것을 의미하는 脈象으로 가장 많은 醫家들이 代脈의 基準으로 삼고 있는 脈象이기도 하다. 그러나, <內經>에는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맨 처음 이 기준으로 代脈을 설명한 文獻은 <傷寒論>이며, <脈經>이후로 金元代까지의 대부

분의 醫家들은 이 脈象을 代脈의 基準으로 삼았다.

<脈經> 이후로 明清代의 대부분 醫家들은 “中止不自還”과 “止有定數”를 代脈體狀의 기준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張景岳은 “凡見忽大忽小乍遲乍數하야 條而更變不常者는 均謂之代니라 自王叔和가 云 代脈來數中止 不能自還 脈代者死로 自後로 以此相傳하야 遂失代之眞義하니라”라고 하고, 丹波元簡은 “仲景叔和所云者 卽代脈中之一端也”라고 하여, “中止不自還”만으로 代脈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醫家들이 이 基準으로 代脈을 설명하는 기준을 삼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更代”

代脈의 “代”를 “更代”로 해석한 醫家들이 있는데, “乍大乍小 乍數乍疏”라고 하여 脈搏의 규칙성이 완전히 고르지 못한 것을 代脈으로 보기도 하였고, 脈이 “軟而無力”한 것이 심한 경우로 원래 뛰던 脈과 다른 脈象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脈을 代脈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 見解는 <內經>의 “但代無胃曰死”라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대표적인 醫家는 張景岳과 日本의 丹波元簡인데 그들은 “平脈之中而忽見軟弱 或乍數乍疏 或斷復而起”이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 代脈이 된다고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도 “代는 更代也니 先見澁濡하고 定止라야 方見代脈이니라”라고 하여 代脈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澁脈이나 濡脈과 같이 元氣가 衰弱한 脈이 먼저 온 후 그치는 脈이 와야 한다고 하였다⁴⁹⁾.

後世에 臨死時에 나타나는 “怪脈”들 중에 몇 가

44) 林之翰, 四診抉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57.

45) 費伯雄, 醫學心悟, 서울, 一中社, p.15.

46) 吳謙, 醫宗金鑒四診心法要訣, 中國醫學大系49, 서울, 도서출판경단. p.29.

47) 徐靈胎, 洄溪脈學, 徐靈胎醫書全集三卷, 台北, 五洲出版社. p.206.

48) 이 부분은 明代 이후 醫書들이 이전 醫書들을 종합 재편하는데 치중하면서 깊은 考證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醫史學的으로 충분한 考察이 필요한 부분이다.

49) 애석하게도 <醫學入門>은 “止不能還”, “更代”, “止有定數”의 기준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서 脈象 이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는 代脈인데 그때 나타는 기준은 “更代”가 된다. 예를 들어 <醫學入門死脈總結>의 내용을 보면 “雀啄은 連來三五啄하고 屋漏는 半日에 一滴落하나라 彈石은 硬來나 尋卽散하고 搭指散亂은 眞解索이 아니라 魚翔은 似有하고 又似無하며 鯁遊는 靜中에 跳一躍이라”하였고, <醫學入門.總看三部脈法>에서는 “凡諸般死脈은 皆十動以下之變名也니라”고 하였는데, 雀啄, 屋漏, 彈石, 解索, 魚翔, 鯁遊의 모든 怪脈이 각각의 독특한 脈象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軟而無力”하고 “乍數乍疏”한 “更代”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臨床的으로 代脈이 死證脈으로 예후가 불량한 脈이 된다는 主病의 내용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止有定數”

이 기준은 代脈과 結脈, 促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結脈과 促脈은 그치는 간격에 일정한 정해진 數가 없는 반면 代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친다는 견해이다. 이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文獻은 <內經>의 “幾十動一代者 幾臟無氣”란 내용이다.

<脈經>에서는 <內經>의 “代”를 “止”로 바꾸어 代脈이 단순히 그치기만 하는 體狀을 가진 脈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겼고, “幾臟無氣”의 내용을 곧장 死脈으로 인식하여 몇 년 뒤에 죽게 되고, 어느 계절에 죽게 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難經>에서는 五臟의 上下를 明示하는 臟象學說을 근거로 一臟은 腎臟이고 二臟은 腎臟과 肝臟이라는 형식의 설명을 추가한다. <脈經>과 <難經>이 <內經>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발전시키려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內經>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곡해하여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脈象의 기준

을 만들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明代 以後의 대부분의 醫家들은 代脈의 體狀으로 “止不能還”과 “定數中止”를 함께 제시한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內經>에서 말한 내용과 <脈經>에서 말한 내용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止有定數”를 代脈의 體狀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內經>에서 제시하는 “幾十動”의 숫자들이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간격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략의 숫자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明代 이후의 醫家들은 <脈經>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如十動一止 雖數十動 皆見于十動之後”⁵⁰⁾라고 설명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다. 즉, 현재 通用되는 “止有定數”는 <內經>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만 <內經>의 本意에서 한참 벗어난 體狀의 기준인 것이다.

그리고, <內經>에서는 “一代”라 한 내용을 “一止”라고 한정적인 脈象으로 대체하여 <內經>의 脈象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內經>에 “數動一代者 病在陽之脈也 泄及便膿血”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內經>의 다른 곳과는 달리 胃氣의 현저한 손상이나 “五臟缺失”을 의미하는 곳이 아님을 고려할 때, 後世의 “促脈”을 설명한 句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數動一代”를 “數動一止”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內經>에 이미 “代”를 “止”로 解釋할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數十動”에 한 번 나타나는 脈象으로 死期까지 제시할 정도의 脈象을 단순히 “止”라고만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모순을 고려할 때 “數動一代”

50) 朴晷譯釋, 上揭書, 1996. pp.230-231.

와 “幾十動一代”의 “代”를 같은 脈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代”를 “止”로 바꾼 <脈經>의 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脈經>의 이러한 시도가 明代 이후의 醫家들이 “定數中止”를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代脈 體狀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內經>에서는 “不滿十動一代者 五臟無氣 豫及短期”라고 하여 “幾十動一代”가 死證脈이 되는데는 “五臟無氣”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後世의 적지 않은 醫家들도 “幾臟無氣”를 “幾臟缺失”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脈經>에서는 “幾十動一止”만으로 몇 년 뒤에 죽게 되고, 어느 계절에 죽게 된다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하여 <脈訣刊誤>에서는 <脈經>이 “幾臟無氣”한 것으로 “幾歲之死期”까지 제시하는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 “<內經>云 腎絕 六日死 肝絕 八日死 心絕 一日死 果此臟氣絕 又安能待四歲三歲乎”라고 하였는데, 戴啓宗도 “無氣”가 곧 “臟絕”을 의미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던 것이다.

<內經>의 내용은 脈의 규칙성이 어느 정도 흐트러지면 몸의 氣運은 어느 정도 “缺失”하게 되는가를 말하고자 한 것이고, 그 규칙성이 “十動一代” 이내까지 깨지게 된 경우 “豫及短期”할 수 있을 정도로 豫候가 不良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內經>의 本意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견해를 추가한 <脈經>의 내용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자세한 考察없이 古典의 내용을 無批判의으로 收用하여 脈象의 기준 정립에 혼동을 야기한 明代 以後 醫家들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內經>의 “幾十動一代 幾臟無氣”의 내용은 기계적인 “止有定數”로 이해

할 수 없다. 따라서, “止有定數”가 代脈體狀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定數”가 기계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아닌란 점과 일정한 간격으로 그친다고 하여 死證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하고, “止不能還”이나 “更代”와 같은 代脈의 다른 특징이 함께 나타날 때 임상적으로 代脈體狀의 한 가지 특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는 “止有定數”는 代脈의 體狀의 특징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Ⅲ. 結 論

- ① <內經>에서는 代脈이 死證과 같은 불량한 예후를 나타내는 脈이 되고, 脈搏의 규칙성에 변동을 수반한 脈이며, 얼마에 한 번 정도 代脈이 보이는가에 따라 全身 臟腑의 氣運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 ② “止不能還”을 代脈의 體狀으로 맨 처음 제시한 곳은 <傷寒論>이 된다.
- ③ <脈經>에서는 代脈의 體狀에 대해서 “止不能還”의 體狀과 “止有定數”의 體狀이 모두 提示된다. 하지만, “止有定數”에 있어서 <內經>의 곡해와 비현실적 이론 전개가 문제가 된다.
- ④ <脈經> 以後 宋金元代 醫書에서는 代脈의 體狀을 “止不能還”으로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⑤ 明代 이후의 대부분의 醫家들은 “止不能還”과 “止有定數”를 함께 代脈의 體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止有定數”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민이나 考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 ⑥ 張景岳과 丹波元簡은 불량한 예후를 나타내는 代脈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代脈의 體狀

이 “更代”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⑦ “中止不自還”의 기준은 明代 이후에는 “止有定數”와 함께 설명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醫家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기준이다.
- ⑧ “更代”의 기준은 <內經>의 “但代無胃”와 “幾臟無氣”의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며, 死脈으로 불리는 怪脈들의 脈象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⑨ “止有定數”의 기준은 <內經>의 내용을 <脈經>이 잘못 이해하여 발전시키고 明代 이후 醫家들이 無批判적으로 확대 해석한 결과로 代脈의 體狀을 설명할 수 없는 기준이다.
- ⑩ “止有定數”는 “定數”가 대략의 숫자란 것과 단순히 그친다고 하여 死證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止不能還”, “更代”와 같은 다른 기준과 함께 보일 때 代脈體狀의 한 가지 특징이 될 수는 있다.

參 考 文 獻

1. 진주표편주, 黃帝內經讀誦本, 서울, 법민문화사, 2009.
2. 胡國臣總主編, 張志聰醫學全書, 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劉洋主編, 徐靈胎醫學全書, 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 吳承玉主編, 脈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5.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8.
6. 晉 王淑和著, 圖注難經脈訣, 臺南, 大孚書局,
7. 施發, 察病指南,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三聯書店, 1990.
8. 戴啓宗, 脈訣刊誤, 中國醫學大系 14, 圖書出版鼎談.
9. 朴炆譯釋,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대성문화사, 1996.
10. 李時珍, 瀕湖脈學, 李時珍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 張景岳, 類經, 張景岳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2.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丹波元簡著, 譯釋脈學輯要, 서울, 대성문화사, 1997.
14. 李仲梓, 醫宗必讀, 李仲梓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李仲梓, 診家正眼, 李仲梓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6. 林之翰, 四診抉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7. 費伯雄, 醫學心悟, 서울, 一中社,.
18. 吳謙, 醫宗金鑒四診心法要訣, 中國醫學大系 49, 서울, 도서출판정담.
19. 徐靈胎, 洄溪脈學, 徐靈胎醫書全集三卷, 台北, 五洲出版社.